新나는 KIA 챔피언스필드

중앙 테이블석 K9석까지 확대…전체 586석
전광판 아래 놀이터…1루에도 내야 테이블석

챔피언스필드가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새 단장을 했다.

KIA 타이거즈가 팬들의 편안하고 행복한 관람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안방을 새로 꾸몄다.

프리미엄 좌석이 대폭 늘었다. 중앙 테이블석이 K9석 구역까지 확대되면서 기존 297석에서 586석으로 테이블석이 크게 늘었다. 또 3루 내야 측에 위치한 '타이거즈 가족석'과 동일한 내야 테이블석(160석)이 1루에도 꾸며졌다. 포수 후면석인 챔피언석은 메이저리그식 프리미엄 의자로 교체해 품격을 높였다.

더불어 국내 야구장 최초로 경기장 내부에 놀이터가 들어섰다. 전광판 하단 공간에 다양한 놀이기구가 설치된 '미니 챔피언스 필드 놀이터'를 조성했다. 샌드파크와 연결된 미니 챔피언스 필드 놀이터는 어린이 팬들을 위한 최고의 놀이 공간이 될 전망이다. 놀이터는 정규시즌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타이거즈 자부심을 강화하는 시설물도 마련했다.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의 한국시리즈 10회 우승 구단의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 1루측 전광판 상단에 역대 우승 로고 사인물을 설치했다. 3루측 전광판에는 타이거즈의 레전드를 대표하는 영구결번인 18번(선동열)·7번(이종범) 사인물이 위치한다. 야간에는 사인물과 전광판 사이로 흰색 조명이 퍼진다.

라커룸 등 선수단 통로에는 연도별 우승 하이라이트 사진과 역대 감독, 구단 로고 등을 부착해 선수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라운드도 메이저리그식 흙으로 새로 정비작업을 하는 등 챔피언스필드의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KIA 관계자는 "새단장 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는 시범경기에서 첫 선을 보인다"면서 "구단은 앞으로도 비전 'TEAM 2020'이 추구하는 '야구 그 이상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팬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설 개선은 '룩 앤드 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IA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65억원을 투입해 이후 지속적으로 인프라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루 타이거즈 가족석(위)과 어린이 놀이터(아래).

MLB '들썩' 박병호 만루포 본인은 '담담'

템파베이와 시범경기서…"타이밍 맞춰 나갈 것"

한국프로야구 KBO 리그 4년 연속 홈런왕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 메이저리그(MLB) 첫 홈런을 만루포로 장식했다.

박병호는 7일(이하 한국 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샬럿 스포츠 파크에서 벌어진 탬파베이 레이스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4타점·2득점을 올렸다.

박병호의 메이저리그 첫 홈런은 1회 초 첫 타석에서 터졌다. 2사 만루에서 제이크 오도리지를 상대한 박병호는 3구를 공략, 중앙 펜스를 넘겼다.

홈런 뒤 파이오니어 프레스·ESPN 등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삼진도 당하고 안타도 치는데, 말 그대로 시범경기라 특별히 홈런을 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대신 박병호는 타이밍을 비결로 꼽았다. "매 경기 타이밍을 맞춰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타이밍이 잘 맞아 (홈런이 나왔다)"는 게 박병호의 설명이다.

이날 경기가 열린 포트 샬럿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현지 기자들은 강한 바람을 뚫고 높이 떠 담장을 넘긴 박병호의 힘에 놀라워했다.

이 점을 묻자 박병호는 "연습 때부터 바람이 우측으로 불어 타구가 안 나갔다. 그래서 콘택트에만 집중했고, 홈런이 됐다"고 답했다. 또한, 높이 뜬 홈런에 대해 "한국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선 경기까지 8타수 1안타, 장타는 치지 못했던 박병호는 호쾌한 홈런포로 손맛을 봤다. 이후 두 타석에서는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 샬럿의 美프로야구(MLB)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시범경기에서 1회초 2사 만루 홈런을 터뜨린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가운데)가 더그아웃에서 동료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아기 호랑이' 강하게 키워야지

김기태 KIA 감독, 시범경기 명단 조정
연습경기 '11개 삼진' 황대인 2군으로

호랑이 새끼를 '강하게 키우겠다'는 KIA 김기태 감독이다.

KIA는 8일 시범경기를 앞두고 선수단 명단을 조정했다. 퓨처스리그 선수단에서 연습경기를 치르게 된 선수 중에는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아기 호랑이' 황대인도 있다. 황대인을 내려보낸 김기태 감독의 설명은 "강하게 키워야 한다"였다.

"수비는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한 김 감독은 "삼진을 너무 쉽게 당한다"는 말과 함께 스프링캠프 연습경기 일화를 소개했다. 김 감독은 "연습 경기 전에 오늘도 삼진 당하면 바로 비행기 태운다고 엄포를 놨다"며 "두 타석에서 모두 투 나씽까지 가더라. 덕아웃에서 다른 선수들이 숨도 못 쉬고 지켜봤다. 바가지 안타를 치기도 했는데 그제야 선수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 웃었다.

심장 떨리는 경기를 치렀던 황대인은 이번 스프링 캠프 연습경기에서 11개의 삼진을 적립했다.

김 감독은 지난 6일 인사를 하기 위해 감독실을 찾은 황대인을 향해 "이번 캠프에서 11개 삼진 기록을 했다. 그 타석에서 삼진 당했으면 감독이 비행기 태웠겠느냐 안 태웠겠느냐?"고 물었다.

황대인도 잘 알고 있다. 망설임 없이 "태웠습니다"라고 답을 한 황대인. 감독실을 나가려는 황대인을 향해 김 감독이 질문 하나를 더했다.

"(야수진)15인 명단은 짜봤느냐? 니 이름이 들어가더냐?"

김 감독의 질문에 이번에도 황대인은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을 했다. 황대인의 씩씩한 대답에 김 감독은 "그럼 직접 내야수 명단을 구성해보라"며 감독실 선수 상황판 앞에 황대인을 세웠다. 이미 2루와 유격수 자리는 꽉 차있는 상황.

후배 최원준의 이름을 먼저 선택한 황대인을 향해 김 감독은 "거긴 빼고, 어느 자리에 들어갈래? 어디를 할 수 있어?"라고 물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대화.

"3루수요.", "그럼 (이)범호 형을 뺄까?", "아니요.", "1루도 가능하냐?", "네!", "그럼 필을 빼면 될까?"

결국 자기 이름을 넣지 못한 황대인은 "열심히 하겠다"며 돌아섰다.

강하게 키우겠다는 감독의 바람대로 마음은 강한 황대인이다. 김 감독의 조련 속에 '아기 호랑이' 황대인이 세밀함을 더해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2～13일 넥센전 26～27일 한화전
KIA 시범경기 입장권 판매

KIA 타이거즈가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BO 시범경기 주말(토·일) 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

오는 12～13일 넥센전과 26～27일 한화전을 대상으로 하며 입장권 예매는 인터넷(티켓링크·www.ticketlink.co.kr)과 전화(1588-7890)로 가능하다. 시범경기에 한해 경기 이틀 전부터 예매가 이뤄진다. 현장 판매는 1～3 매표소에서 진행되며,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부터 판매가 이뤄진다.

입장권 가격은 성인 3000원, 중고등학생 2000원이다. 초등학생 및 장애인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매표소에서 무료 입장권을 수령해서 입장해야 한다. 주말 경기를 제외한 평일 시범경기는 무료 입장이다. /김여울기자 wool@

쾌유를 빈다

마음 풀렸다

전인지·장하나 '싱가포르 부상' 감정싸움 풀고 화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하고 귀국한 장하나(24·비씨카드)가 허리를 다친 전인지(22·하이트진로)의 쾌유를 빌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한 장하나는 7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전인지의 부상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다음 대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인지는 지난 5일 자신의 팬카페에 "저나 우리 부모님은 그분들(장하나 측)이 주장하는 사과나 미안함을 전달받은 적은 없다"면서도 "그쪽에서 해명한 것 만으로도 마음이 다 풀렸다. 저는 이미 훌훌 털었다"는 글을 올렸다.

전인지는 싱가포르 대회를 앞두고 지난 1일 입국한 싱가포르 공항에서 장하나 아버지의 가방에 부딪혀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출전을 포기했다.

전인지는 이 사고로 싱가포르에서 MRI 촬영까지 했다.

결국 전인지 측은 "선수가 다쳐서 대회에 못 나갔는데도 장하나 측에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고 비난했고, 장하나 측은 "충분히 미안하다고 했다"고 맞서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한쪽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는 등 양측간의 감정싸움으로 번졌다. /연합뉴스

LPGA 2승 장하나 세계랭킹 5위로 껑충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016 시즌에 벌써 2승을 올린 장하나(24·비씨카드)가 세계골프랭킹을 한껏 끌어 올렸다.

장하나는 7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6.09점을 받아 지난주 10위에서 5계단 오른 5위에 자리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2위 박인비(28·KB금융그룹)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장하나는 6일 싱가포르에서 끝난 HSBC 위민스 챔피언스에서 우승, 코츠 챔피언십을 포함해 시즌 2승을 거뒀다.

리디아 고(19)가 여전히 1위를 지켰고, 렉시 톰프슨(미국)과 스테이시 루이스가 각각 3위와 4위에 올랐다.

양희영(27·PNS)과 김세영(23·미래에셋), 전인지(22·하이트진로)는 6～8위다. /연합뉴스